북한매체 보도 동향

1. 농업정책

□ 농업정책

○ 알곡증수를 담보하는 과학농사 (로동신문 1.18)

· 농업생산의 과학화, 집약화 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숙천군 일군들은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· 군 일군은 지난해 농사경험을 분석한 결과 영농공정과 방법을 높은 과학적 토대위에 올려세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문제를 실정에 맞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알곡소출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올해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.

· 이를 위해 우선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과 기후풍토에 맞게 영농공정별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움. 또한 경험이 있고 실무수준이 높은 일군을 통하여 지력과 비료수준을 검토하고 가장 합리적인 품종을 선택하도록 함.

· 더불어 논갈이계획을 구체적인 토양 조건에 맞게 세우도록 함. 논갈이를 과학적으로 하면 토양구조를 개선하여 농작물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음.

○ 유기농법을 대대적으로 도입할 목표 밑에 (로동신문 1.21)

· 안변군에서는 논밭 정보당 5톤 이상의 질 좋은 흙보산비료(후민산비료)를 실어낼 목표 밑에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.

·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니탄원천을 찾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한달 동안에 1만여 톤의 니탄을 캐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움. 특히 일군들은 농장에서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고 작업도구를 충분히 갖추도록 함.

· 또한 농장의 기술일군들은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가 인세균비료를 비롯한 미생물비료 생산을 늘리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위한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□ 과학영농

○ 논벼농사의 과학화, 집약화 실현과 큰모재배 (로동신문 1.24)

· 김정은은 “농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 농업생산의 과학화, 집약화수준을 높여

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경공업공장들에 대한 원료,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."고 말함.

· 큰모재배를 받아들이면 논에서 두벌농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음.

· 간석지, 냉습지, 생육전반기 및 후반기에 소출이 떨어지는 논들에서 큰모재배를 받아들이면 저온피해, 냉해, 뿌리썩음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해를 막아 정보당 논벼 소출을 높일 수 있음.

· 지방의 유휴자재를 이용하여 성형알판을 만들어 성형아모에 의한 큰모재배를 받아들이면 논벼농사의 공업화, 현대화를 실현하면서도 알곡소출을 훨씬 높일 수 있음.

· 농업부문 일군들은 과학적이며 집약적인 큰모재배방법의 우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지방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임으로써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함.

2. 벼농사

□ 농사차비

○ 수십만 톤의 거름을 실어낸 기세로 (로동신문 1.15)

· 자료에 의하면 농사차비에 나선 일군, 농업근로자들이 10여 일 동안에 수십만 톤의 거름을 포전에 실어낸 기세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음.

· 문덕군에서는 새해 첫 사업을 시작하여 열흘 동안에 10여 만 톤의 질 좋은 거름을 포전에 실어낸 기세로 매일 수천 톤의 거름을 포전에 내고 있음.

· 룡림, 인흥협동농장의 일군, 근로자들은 객토사업에 나서 성과를 계속 올리고 있음. 짧은 기간에 많은 면적의 포전에 객토를 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운반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.

· 숙천군 금풍, 신풍, 검흥, 평산농장에서는 니탄캐기 성과가 흙보산비료생산 성과를 이루어짐을 강조하며 니탄캐기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. 평원군에서도 매일 수천 톤의 거름을 실어내면서 니탄캐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.

○ 모판자재 준비를 착실히 (로동신문 1.15)

· 어랑군 이향협동농장에서 새해농사 준비를 실속 있게 하고 있음.

· 농장일군들은 지난해의 농사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 토심이 얕은 농장의 조건에서는 튼튼한 볏모를 내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맺게 됨.

· 일군들은 올해 농사를 잘 짓는데서 볏모기르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농장원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· 특히 제3작업반이 모판자재준비에서 앞장서고 있음. 또한 제1작업반에서도 튼튼한

볏모를 기르자면 그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장과 바람막이바자(방풍울타리), 나래(덮개)를 넉넉히 마련하고 있음.

○ 1만 8천여 정보의 논밭 객토사업 진행 (로동신문 1.16)

· 농업성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새해 들어와 10일 동안에 전국적으로 1만 8천여 정보의 논밭에 객토사업이 진행됨.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.4배나 높은 실적을 올린 것임.

· 황해남도 안악군에서 새해 첫 열흘 동안 3천여 정보의 논밭에 객토를 하는 성과를 거둠. 안악농장, 오국협동농장, 룡산협동농장에서는 질좋은 개바닥흙(저니토)을 파내어 각각 백 수십 정보의 논밭에 객토를 함.

· 평안북도 룡천군에서는 지난 기간의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필지별 토양분석자료를 놓고 객토사업 목표를 세움. 특히 장산협동농장에서는 초기생육이 좋지 못한 논에 집중적으로 객토사업을 실시함.

· 평안남도 문덕군에서는 1월 초순까지 계획된 면적의 객토를 모두 끝내는 성과를 거둠. 특히 룡림, 인흥협동농장에서는 원토장을 바로 정하고 운반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면적의 포전에 객토사업을 진행함.

· 남포시 강서구역, 항구구역, 와우도구역에서도 객토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여 새해 첫 열흘 동안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.2배 이상의 많은 면적에 객토사업을 진행함.

□ 두벌농사

○ 농업생산의 집약화와 두벌농사 (로동신문 1.22)

· 농업생산집약화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임.

· 지난 시기에는 두벌농사를 정주 이남지역에서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왔으나 자연기후조건이 불리한 북부지대의 장강군 읍협동농장의 경험은 어디서나 두벌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음.

· 두벌농사를 잘하여 알곡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태천군 은흥,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의 경험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함.

3. 산림

□ 통나무 생산

○ 통나무 생산에서 연일 혁신 (로동신문 1.17)

· 유평림산사업소에서 첫달 통나무생산계획을 60% 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거둠.

· 유평림산사업소 일군, 노동자들은 겨울철통나무생산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새해 정초부터 나무베기와 모으기, 사이나르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.
· 천수작업소에서는 기계톱정비를 비롯하여 통나무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놓은 데 맞게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통나무베기와 모으기, 사이나르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.
· 이계수작업소의 트랙터운전수들은 산판지형이 불리하고 사이나르기[1]거리가 멀지만 높은 책임성 하에 통나무를 베는 족족 토장으로 실어내고 있음. 하평작업소에서는 산판지형을 이용한 통쏘이[2]방법으로 통나무모으기에서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음.

□ 산림

○ 임농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여 (로동신문 1.25)

· 김정일은 “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뜯어먹어야 한다고 교시” 함. 이것은 산이 많은 곳에서는 산림을 잘 조성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함.
· 산에 나무를 심고 농작물과 약초, 집짐승먹이작물을 재배하면서 산열매와 산나물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이 임농복합경영방법임. 이 방법을 받아들이면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지방공업원료를 보장하는데도 유리하다고 설명.
· 산림토지를 임농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여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종전에 비해 나무의 사름률(활착률)과 성장률이 높아지고 토양침식현상이 근절되었다고 설명함.

4. 기타 작물

□ 과수

○ 과일농사준비에 힘을 넣어 (로동신문 1.18)

·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새해에 들어와 보름 동안에 각지 과수농장의 유기질비료생산 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.3배 뛰어오름. 소석회와 식물성농약생산, 중소농기구 확보를 비롯한 당면한 농사준비 실적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훨씬 높아짐.
· 과수련합총회사에서는 지난해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 목표를 주도면밀하게 세움. 과일생산의 과학화, 집약화를 적극 실현해 나가는데 중심을 두고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더 많이 심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.
· 각지 과수농장에서는 지력을 높여야 과일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연초부터 유기질비료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.

---

1) 베어 놓은 나무를 산림 철도, 차도, 수로까지 나르는 일.
2) 산비탈에 낸 홈을 따라 통나무가 저절로 내려와 쌓이도록 하는 일. 또는 그런 시설

· 또한 소석회 생산에도 집중하고 있음. 특히 함경북도과수연합회사에서 소석회생산을 다그치고 있으며 명간, 어랑과수농장에서는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소석회를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.

5. 기타 보도 동향

□ 비료, 거름

○ 성과를 내는 복합미생물비료생산기지 (로동신문 1.25)

· 정평군에서 복합미생물비료공장을 개건하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그 효과를 크게 보고 있음. 이 비료공장에서 수천톤 능력의 여러 가지 미량원소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고 있음.

· 이 공장은 전반적인 생산공정이 흐름식으로 되어있으며 온도보장과 공기갈이에 유리하게 생산건물이 설계되어 있음.

· 또한 자체로 건설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이용하고, 증기보장조건이 좋으며 광포오리공장을 옆에 끼고 있어 원료보장조건 또한 대단히 유리함.